

별을 쏘다 ☆

SUNGWOO HITECH MAGAZINE

2017. AUTUMN vol. 014





천지를 살라먹을 듯
붉은 빛깔이
다섯 손가락 단풍잎 끝에
푸르렀던 산등성에
우리들의 마음에 물들어 오릅니다.

차분했던 마음속에
붉은 설렘이 들어차는 계절,
잊고 지내던 사람과 추억과 기억을
꺼내어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CONTENTS



Cover Story

별빛 쏟아지는
깊어가는 가을 밤

04 Field Sketch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웃은
뜨거운 한판 승부

08 Education

대체 불가 리더들이 밝히는
성우하이텍의 미래

12 Smart SUNGWOO

SMART SUNGWOO 시대에 한 발 가까이,
통합모바일 시행

16 Challenge SUNGWOO

가을비 잊게 한 마라토너들의 축제

20 Happy Together

조금 느리게, 행복은 꼭 차게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22 SUNGWOO People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

26 Going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

32 Art Story

시(詩), 스크린에서 날개를 펴다

36 Poem

가시는 걸음걸음 시에 취하여
'대운로 시비(詩碑) 거리'

38 Interview

"시를 쓴다는 건 내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42 Brand New

낮선 듯 낯설지 않은,
장수제품의 특별한 변신

44 For 40th Anniversary

역사의 역사 속으로

48 Tasty Road

이색적이고 건강한 빵을 찾아가다

50 Break Time

Killing Time? Healing Time!

52 SUNGWOO Family

우리 집 '사랑둥이'를 소개합니다♥

57 Issue & News



스마트폰으로
성우하이텍 사가(社歌)를 만나보세요.

별을 쏘다 ★

2017 AUTUMN vol. 014

발행일 | 2017년 11월 14일 (통권 제14호) 발행인 | 이명근

사보기자 | 강승호, 김도형, 김태우, 김태훈, 남창식, 문해준, 박노실, 박은혜

신민환, 안상수, 이성은, 이수승, 이승욱, 정영화, 최성욱, 최수영 (가나다순)

발행처 | 성우하이텍 www.switech.com (인사노무팀 Tel. 070-7477-6233)

기획 및 디자인 | 미디어줌 (Tel. 051-623-1906)

함께 뛰고 땀 흘리며 웃는 뜨거운 한판 승부

제14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성우하이텍 파이팅!”

지난 9월 1일 서창공장 풋살 경기장, 이명근 회장의 힘찬 구령과 시축으로 '제14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포문을 열었다. 올해는 일정이 연기되어 가을에 본선을 치르게 되었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아산성우하이텍, 지사공장, 정관공장, 코일센타 등 각지에서 서창공장으로 모인 성우가족의 얼굴에 반가움이 떠올랐지만 오랜만에 만난 회포는 잠시 미뤄두기로 한다. 지금부터는 냉정한 승부의 시간! 4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 풋살 경기장과 8팀이 본선에서 만난 족구·탁구(남자단·복식, 여자단식, 혼합복식) 경기장에서 연신 환호와 탄성이 터진다.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원 없이 펼쳐내는 선수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에, 각 시합이 진행되는 경기장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가 펼쳐진 때문이다. 이런 직원들의 열기를 이어가듯 이명근 회장은 모든 결승 경기를 관람하여 참가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한편, 매년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아산생산관리팀의 족구 결승이 시작되자 흠뻑뻑 직원들이 경기장을 빙 둘러싸며 환호했다. 쉽지 않은 상대



볼콧~슛~
아니, 풋백킵!



안전한 경기를 위해
준비운동은 기본!



어서와~ 이런 트로피는
처음이지?



를 만난 서창영업·물류팀의 반격도 만만찮다. 상대의 허를 찌르는 공격과 불가능해 보이는 수비가 성공할 때마다 '우와!' 하는 탄성이 관중객들 사이에서 번져나간다. 열렬한 응원에 보답이라도 하듯, 아산생산관리팀의 공격수 김형삼 기사(아산 조립4반)가 날카로운 '풋 백 킥'으로 상대의 수비를 무력화시켰다. 이날 아산생산관리팀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승자와 패자로 갈릴 수밖에 없는 승부였지만 함께 땀 흘리며 응원하고 환호하는 사이, 성우인들은 한층 돈독해진 동료애를 확인하였다.

스트레칭
쭉쭉!



제발~좋은 상대 만나게 해주세요.

두근두근
조추첨...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든 명승부!

디펜딩 챔피언 VS. 돌아온 실력자

올해부터 혼합복식 종목이 신설된 탁구 경기는 단연 화제였다. 남자 단·복식, 여자 단식, 혼합복식 경기마다 많은 관중이 모여들어 관심을 짐작케 하였다. 저마다 응원하는 직원의 이름을 목청껏 외치며 열띤 응원전이 펼쳐진 가운데, 경영기획본부에서 여자단식과 혼합복식 종목을 석권하여 신(新) 강자로 떠올랐다. 한편, 이날 탁구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남자단식 경기. 2013년 우승 이후 4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 이창근 조장(공정QC)과 3년 연속 우승이라는 대 기록 수립에 나선 최성욱 기장(지사 조립계)이 결승에서 맞붙었다. 1세트를 끝내기도 전부터 두 선수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최선을 다하는 명승부에 관중들도 숨을 죽였다. 잔뜩 얼어붙은 경기의 긴장을 깬 것은 이명근 회장. 경기를 관람하던 이명근 회장은 잠시 땀을 닦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예정에 없던 돌발 상황에 관람하던 직원들도, 선수들도 웃음을 터트리며 한순간 긴장을 잊고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셀프타임~



이 창 근 조장(공정QC)_ 남자 단식 우승

Q. 4년 만의 우승 소감?

4년 전 우승 후 체코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3년 정도 운동을 쉬었습니다. 어깨 수술도 받았고요. 명예회복이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성공해서 뿌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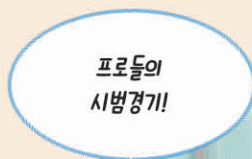
Q. 이번 대회에서 탁사모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회장으로서는 향후 계획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어서 기쁩니다. 지금은 정관, 서창 공장 직원만으로 게임을 하는데 앞으로 지사, 장안 공장과 교류전도 해볼 계획입니다. 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핑~퐁! 핑~퐁! 눈앞에서 펼쳐지는 수준 높은 경기

이날 구름 관중을 불러들인 또 다른 경기가 있었으니, 바로 양산시 탁구협회 소속 선수들의 시범 경기. 총무안전환경팀에서 마련한 이번 대회 of 특별이벤트였다. 임직원들의 눈과 귀가 온통 집중된 가운데 지름 40mm, 무게 2.7g의 작은 공으로 만들어내는 화려한 기술들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실 새 없이 이어지는 스매싱과 날카로운 드라이브 공격. 그리고 그것을 쇼핑(강한 커트로 상대의 공을 넘기는 기술)으로 막아내는 환상적인 수비! 전에 볼 수 없었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기에 너도나도 입이 떡 벌어졌다. 강하게 몰아붙였다가 적당히 풀어주고 또다시 죄어주는 랠리는 마치 음악 리듬처럼 물입을 이끌어내었다. 성우가족들에게는 잊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었다.🏓



2017 승진자 교육

대체 불가 리더들이 밝히는 성우하이텍의 미래

2017년도 승진자 교육이

경남 통영에서 2차수(9월 11일~12일, 14일~1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경영전장에서 배우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산도와 세병관 일대를 탐방하였고,

2일차에는 '승진자의 리더십과 역할인식'을 주제로

차장&부장/대리&과장으로 클래스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독히도
평범한 사람 이순신,
조선을 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순신은 지독히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순신을 연구한 강사의 이야기에 들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수륙병진(水陸竝進) 전략을 통해 조선을 단숨에 정복하고 명나라를 넘어 동북아시아를 지배하고자 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야욕을 꺾었던 한산도대첩, 12척의 배(이후 일반 백성이 가져온 배 한 척 추가하여 13척)로 133척의 적선과 맞붙어 빛나는 승리를 거둔 명량대첩, 이외에도 옥포, 부산진, 안골포, 울포, 노랑에서 패배를 몰랐던 무신(武神) 이순신이 평범하다고 하다니.

이어지는 설명에 그 답이 있다. 『난중일기(亂中日記)』에는 토사곽란(吐瀉霍亂: 토하고 설사하는 위장병)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연전연승 불패 신화의 이순신이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며 토사곽란했다는 기록이다. 꿈 해몽에 불안해하며, 어머니와 가족들이 그리워서 눈물 짓는 모습이 여느 필부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지독히도 평범한 이순신이 세계 역사상 최고의 성웅(聖雄)으로 거듭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순신은 단 한 번도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욱 강사가 자신 있게 내놓은 대답이다. 부임지에 병장기가 녹슬고 군함이 모자란 환경에서도, 군주와 신하들이 시기하여 억울하게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상황에서도, 원군의 칠천량해전 패배로 12척만이 남은 명량 앞바다에서도 이순신은 남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이것이 평범한 이순신이 16세기 조선을 넘어 동북아시아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었다.



리더십:
긍정적 영향력을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협조를 일으켜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뚜껑의 법칙’을 아시나요?”

물탱크의 뚜껑을 요구르트병 뚜껑 크기로 만들어서는 쓸모가 없다. 용기(容器)의 사이즈가 뚜껑의 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조직의 성과는 리더의 리더십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 뚜껑의 법칙이다. 리더의 리더십이 클수록 구성원들의 역량도 향상되고 조직의 성과도 커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뚜껑이 작으면 용기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구성원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고 열정적이어도 리더가 리더십이 없고 무능하면 자괴감에 빠진 구성원은 리더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흔히 “팀장 능가하는 팀원 없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김명식 강사는 차/부장들에게 ‘리더로서의 여유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리더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과’를 쫓다가 ‘사람’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 업무는 ~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 방법을 알아보고, ~ 방향으로 추진해서 XX일까지 중간보고 해주세요. OOO 씨가 만든 자료를 보고 함께 조율해봅시다.”

“~하라고 지시가 왔으니까, OOO 씨가 해. 이것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더하여 『유능한 관리자』, 『직원이 직장을 떠나는 7가지 숨겨진 이유』 등 여러 책에서 ‘유능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사 때문’이라고 하며, ‘더 높은 연봉’이나 ‘더 좋은 기회’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이들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차/부장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10년 남짓한 직장생활, 어느새 리더가 되며 놓치거나 잊고 있었던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으리라. 진정한 리더가 넘치는 성우하 이택을 그려본다.





사람을 남겨라 | 정동일 저/복스톤/2015년

기업의 모든 활동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에 수많은 CEO들이 '사람의 중요성'을 말한다. 거대한 국가조직부터 소규모 단체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담아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 집단은 생존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무엇이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제시한다.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 선대인 저/인플루엔셜/2017년

미래 일자리의 변화를 경제적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한 책. 기술 발전의 관점에서 직업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실업, 임금 등과 같이 노동의 관점에서 일자리 문제에 접근하던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탕으로 일자리 변화를 분석했다.



집단지성: 협력과 경쟁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모아진 집단적 능력

꽤 오랜 기간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천재경영론이 유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천재경영론을 주장했던 기업마저 한 명의 천재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천재 한 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정보의 홍수 속에 처해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영환경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천재를 능가하기 위하여 각자가 '지성'이 되어야 한다. 집단 지성은 '집단'지성이 아닌 집단'지성'이어야 한다.**

2016년 이세돌 9단이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에 졌다. 이세돌 9단이 패배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패배가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 서막을 전 세계에 알렸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고숙련 고부가 일자리, 로봇보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저숙련 저부가 일자리로 양극화될 것이다.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로봇이 대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될 것인가?

고재석 강사는 대리·과장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진짜 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희망사항(가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만이 진짜 꿈이다. **진짜 꿈에는 반드시 '반복된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바쁜 일정에도 새벽 4시 독서 습관을 2년째 유지하고 있다는 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구나 머리맡에 몇 년째 묵혀 놓은 가짜 꿈들을 꺼내보는 시간이 되었다. 가짜 꿈들이 반복된 행동으로 진짜 꿈이 되는 순간, '대체 불가능'한 각자가 '지성'이 되어 집단지성으로 이끌어갈 밝은 내일의 성우하이텍을 꿈꿔본다. 🌈



SW PLATFORM

SMART SUNGWOO 시대에
한 발 가까이

통합모바일 시행

“외근 중에도 근태를 올릴 수 없을까?”

“용량 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품에 생긴 문제를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등록한다면
일처리가 더 빨라질 텐데.”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야만 처리할 수 있던 이러한 업무를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볼 수 있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 처리 속도 또한 빨라지지 않을까. 많은 기업들이 앞 다투어
스마트 오피스 만들기 투자는 이유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성우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다. 바로 ‘통합모바일’ 시행을 통해 pc 없이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 것. 현장 및 사무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를 더욱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SMART FACTORY·SMART
OFFICE’에 한 발 다가선 성우의 미래를 꿈꿔본다.

2015



방문자 예약

March | 방문자 예약

모바일로 방문자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발:
ERP에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August | 성우플랫폼 구축

모바일 개발의 근간이 되는 성우만의
플랫폼 개발: 모바일 개발 용이

September | 채용1차

웹 기반 채용 홈페이지 개발:
수동으로 작업하던 채용 절차
자동화



영업

October | 영업1차

모바일을 통한 효율적인 배차
관리 및 시간 조정(납품 차량
의 입/출고 시간 관리):
납품 차량 대기 시간 절감

2016



S-Thanks

April | S-THANKS

‘SUNGWOO-THANKS’ 개발:
서로 사랑하며 아끼는 직원들 간
소통의 장



BNS

May | BNS

사내 협업시스템
‘BNS(Business+SNS)’ 개발:
업무 및 대용량 파일 공유, 협업의 장

August | 영업2차

영업 시스템 고도화: 고객사
공장별 납품 재고 현황의 실시간
등록 및 모니터링 가능

July | 인도POP

달성을 모니터링/GOMS(자주
검사등록) 개발 및 표준화된
성우플랫폼을 해외에 확대 적용



달성률
모니터링

September | 채용2차

채용 시스템 고도화: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원자의 데이터
분석 및 관리 가능

November | 영업3차

영업 시스템 고도화: QR을
이용하여 PLT LOT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January | 통합메신저

사용자 간의 원활한 소통 및 불편함 해소 위해
통합메신저 자체 개발 중: WEB - PC - 모바일 간
의 메신저 부재 및 고객사 메신저 충돌을 대비하여
다자 간 화상 채팅, 채팅(메신저) 원격 지원



Push

March | 멕시코PUSH

APP의 PUSH 기능(앱에서 사
용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보
를 전달하는 기술)를 이용하여
해외 적용: 고비용의 SMS(Short
Message Service) 비용 절감

April | 국내PUSH

멕시코에 적용한 PUSH 기능
국내에 확대: SMS 비용 절감

2017



May | 통합모바일

업무별 모바일 통합: 효율
적인 모바일 사용 지원 및
직원검색/근태신청/주간식단
등 편의 기능 추가



품질

September | 품질

품질일보, 품질문제 신고,
DIM's 검색 등 품질문제 공유
및 현장에서 모바일로 업무
처리 가능



외근 중일 때
근태 등록을 하고 싶다면?



김사원

과장님! 저 급히 외근 왔는데,
근태 좀 올려주세요!

지사공장 박과장

아, 나도 현장인데.
모바일로 올리세요~

김사원

앗! 모바일이 있었죠!



과장님, 근태 등록 완료했습니다!

전송

스wing아이디가 없어도, PC가 없어도,
모바일로 근태 등록 가능!

스wing아이디를 이용하여 ERP에서 전자결재를 받은 후 진행
했던 근태신고를, 스wing아이디나 ERP 없이도 모바일로 간편
하게 결재라인을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현장에서 곧바로
품질문제를 신고하고 싶다면?



서창공장 박기사

어라, 반장님!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창공장 이반장

통합모바일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바로
등록할 수 있지!

서창공장 박기사



통합모바일 덕에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네요.

전송

문제 발생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등록 가능!

제품 품질문제 발생 시, 사무실에 복귀해야 작성할 수 있던
품질문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등록할 수 있다.



대용량 자료를 보내지 않고
공유하고 싶다면?



독일WMU

도면 좀 보내주세요.

서창공장 사무실

도면 용량이 2GB나 돼서
메일로 보내기엔 너무 큰데 어떡하죠?

그래! 모바일 BNS로 도면도 공유하고
히스토리 관리도 해야겠네요!



도면 공유했으니, 확인해주세요~

전송

업무용 SNS 성격을 지닌 BNS(Business + SNS)로 대용량 자료 공유 가능!

업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업무용 SNS 시스템 'BNS'. 기존에는 20MB 이상의 파일을 메일로 주고받을 수 없었는데, BNS를 이용하면 2GB 이하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TFT팀이나 그룹에서 BNS를 활용하여 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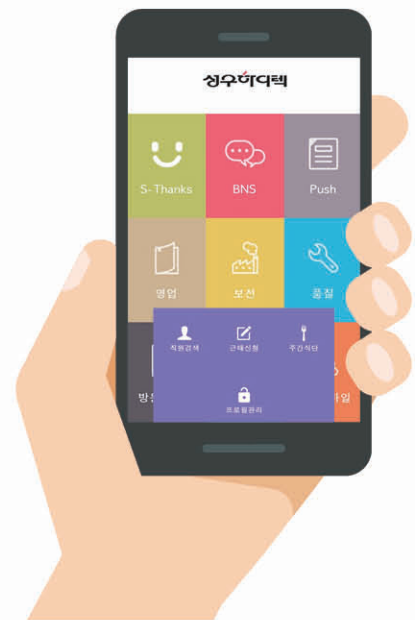
통합모바일, 이럴 때 사용해요~

통합모바일은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상황별 사용 매뉴얼을 익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자.

좀 더 빨라진 일처리, 스마트한 업무 진행으로

업무 능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 외 통합모바일의 다양한 기능

직원 검색 해당 직원의 근태 상태 확인, 업무,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주간 식단 매주 월요일 아침 업데이트 된 식단표 확인이 가능하다.

프로필 관리 개인 상태 메시지 작성, 사진 변경이 가능하고 대표 직무도 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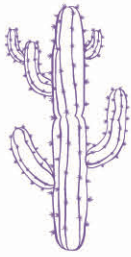


가을비 잊게 한 마라토너들의 축제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7 부산바다마라톤대회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7 부산바다마라톤대회’가
10월 15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 광장과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 일대에서 열렸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로 어느 해보다 특별한 풍광을 연출한 이날,
가을비 촉촉한 다리 위에서 펼쳐진 열기 넘치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다 사하라사막마라톤 Sahara Race

생존에 필요한 필수장비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인 사하라사막 250km 구간을 달리는 대회이다. 개인 참가와 팀 참가(세 명이 한 팀) 모두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7일간 총 6개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10~12km마다 설치된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때 코스를 이탈하거나, 체크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레이스를 진행하거나, 코스 표지물을 훼손하면 실격 처리된다. 레이스에 필요한 음식과 의류, 침구 등은 참가자 각자가 준비해야 하며, 매일 필요한 양의 물(약 10ℓ)과 숙박용 텐트는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한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이틀간 8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구간과 정규 마라톤 코스인 42.195km 구간은 항상 포함된다. 6개 구간을 달리는 동안 참가자들은 바위와 평야, 호수, 사구 지역을 포함하여 작은 마을들과 피라미드, �핑크스를 지나가게 된다.

- 코스: 250km
- 대회 기간: 6박 7일
- 대회 정보: www.4deserts.com



사진 출처: 4Deserts facebook

인간이 만든 위대한 건축물 위를 달린다 만리장성마라톤 Great Wall Marathon



우주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 이러한 설명만으로 그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만리장성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이다. 풀코스부터 하프, 10km, 10km걷기, 5km 등 코스는 마라톤과 비슷하다. 다만 산 정상부 및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만리장성을 달려야 하는 만큼 경사도가 상당한 코스가 많다. 또한 평지를 달리는 일반 마라톤과 달리 3,700개 이상의 계단을 지나야 하는 것도 특징이다. 때문에 평지를 자주 달려본 사람보다는 계단을 잘 오르내리는 사람이 유리하다. 오르막과 내리막, 마을 근처 평지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 코스: 풀코스, 하프, 10km, 10km걷기, 5km
- 대회 기간: 풀코스의 경우 8시간 이내
- 대회 정보: www.great-wall-marathon.com



바다마라톤만큼 특별한 전 세계 별별 마라톤

부산바다마라톤은 부산의 대표 해상대교 3개를 건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마라톤이다.

드넓은 가을 하늘을 벗 삼아 푸른 바다 위를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외국인 참가자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부산바다마라톤처럼 이색적이고 특이한 마라톤대회가 또 있을까?

바다 위를 달리는 것 못지않은 세계 별별 마라톤대회를 소개한다.



구름 위를 달리다



텐징-힐러리 에베레스트 마라톤 Tenzing-Hillary Everest Marathon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네팔 산악인 텐징 노르가이와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를 기념해 2003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마라톤대회이다. 이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개최되는 마라톤으로 기네스북(Guinness World Records)에 등재되어 있다. 출발지는 해발 5,364m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이고, 도착 지점은 3,446m의 히말라야 마을 남체 바르자이다. 평지에서도 힘든 마라톤 경기를 산소가 희박한 히말라야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없는 도전이기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사원, 기념물, 불탑, 현수교(suspension bridges) 등 이국적이고 장엄한 풍경은 덤이다. 🌄

• 코스: 42.195km

• 대회 정보: www.everestmarathon.com

조금 느리게,
행복은 꼭 차게

성우하이텍 어린이집

9월 16일, 개원 6개월을 맞은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이 2018학년도 원아모집 설명회를 열었다.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3월 개원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은 성우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미 정평이 났다.

더 많은 직원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설명회는 직원들의 관심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성우하이텍 직장어린이집은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이라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된다. '푸르니 보육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영유아의 자율적인 선택과 주도적 활동을
추구한다는 것. 아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자발적 탐색을 위한 '오감각 체험'과
자율성 증진을 위한 주도적 '놀이'를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고, 느끼며 배워간다.
아이가 행복하니 부모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조금 느리게, 그렇지만 행복은 꼭 차게 하루하루
성장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이 추구하는 교육의 본질 다름
아니다. 🌈



66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만족하시는
부모님들 반응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우리 교사들도 행복한
성우하이텍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께서도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99



자기 발전을 위해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조립1반 김유철 조장처럼,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지난 8월 학위 취득 후 새로운 도전을 앞둔
김유철 조장을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쉽지 않은 도전, 영광으로 돌아오다

Q. 사이버대학 입학 계기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배움에 대한 욕망은 늘 있었습니다. 한창 공부할 시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집안 사정이 나빠지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형님의 권유로 중장비 기사 생활을 시작하여 성우하이텍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고 어느덧 직장생활 20년차에 이르렀습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 지금까지 꾀꾀 누르고 있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제 안에서 나날이 커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계기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비도 일반 대학에 비해 저렴한 사이버대학은 제 사정과 맞아떨어졌고요.

Q. 자동차 IT융합공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전공 선택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IT는 원래 관심이 많은 분야였고 자동차는 매일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이니, 둘을 융합하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졸업을 할 때에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을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지요. 현장 일 이야 제가 오래도록 해온 만큼 잘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애를 먹었거든요. 자동차 관련 지식과 미래의 지능형 첨단 자동차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고도 싶었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하고 나니 작동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일하는 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익어서 막연히 아는 것에 이론적인 배움이 더해질 때 생기는 시너지 효과가 아닌가 합니다.

Q. 졸업하기까지 특별히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공부한 한양사이버대학은 우리 회사와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맺고 있어서 학비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으니 우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저를 응원해주고 지원해준 조립1반 주환성 반장님과 강인귀 조장, 박준우 기장, 그리고 담당인 박상준 대리에게도 특히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

조립1반
김유철 조장

Q. 학위 취득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교롭게도 대학 수강 기간과 해외 출장 기간이 많이 겹쳤습니다. 거의 입학하자마자 해외 근무를 해야 했고, 막바지에도 체코에 나가 있었어요. 강의는 틈틈이 들으면 되는데 시간이 정해진 시험 시간을 맞추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시차 때문에 시험 시간이 일과 시간과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낯선 용어로 가득한 수업을 따라가거나 레포트를 제출하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Q.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가족과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가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쉽게 포기하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졸업해야겠다는 의지가 오히려 더 강해졌지요. 특히 어릴 적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큰형수님께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가령
어린이의 행동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에게
꼭 한 가지씩은 배운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배움의 과정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졸업식 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지난 8월 19일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도 사이버 강의를 듣다 보니 캠퍼스에 갈 일도, 동기들을 만날 기회도 잘 없었는데요.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교수님도 뵙고 졸업식장에서 학위증을 받으려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드는 순간 코끝이 찡하며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Q. 조장님만의 자기 계발 노하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자기 계발도 결국 자기만족입니다. 제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성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살아 있는 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발전하자고 늘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합니다.

Q. 자기 계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보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누구든, 가령 어린이의 행동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에게 꼭 한 가지씩은 배운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배움의 과정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덧붙여, 작은 것이라도 일단 '목표'를 세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작은 목표부터 세우고 계획을 짜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01



02



03

나에게 온 소중한 기회, 성우하이텍

Q. 조장님에게 성우하이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공부도 포기하고 꿈도 없었던 저에게 성우하이텍은 제가 만난 '기회'였습니다. 회사생활 시작 후 맡은 바 본분을 다하다 보니 차츰 이뤄내고 싶은 목표도, 꿈도 생겼습니다.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스스로 찾아서 일하는 적극성도 보이게 되었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공부해볼 용기도 얻었지요. 감사하고 소중할 따름입니다.

Q. 성우하이텍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인당 한 달 한 건의 개선사항을 수집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건을 목표로 해보자 마음먹고 개선사항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한 개선사항만 해도 천 여 건에 달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07년 '성우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명근 회장님께 꽃다발을 받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Q.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모로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무리 힘든 시기도 지나가게 마련이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회사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생활하면 그 좋은 기운이 동료에게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우선 '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출근해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지금의 힘든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Q. 향후 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큰 산을 간신히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나 봅니다. 당장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IT MBA' 과정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학비라든지 강의 커리큘럼 같은 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 잘 준비해서 '대학원 입학'이라는 목표부터 이뤄낼 예정입니다. 일적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을 여러 동료들과 자유로이 토론하고 공유해서 성우하이텍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

01 조립1반 사무실에 각종 상패를 보관해두었다.

02 체고 기숙사 시절

03 지난 8월 졸업하며 받은 학위증

Going

자연을 노래하다,

青松

청 송

青松白鶴雖無分 청송백학수무분

청송백학은 비록 분수에 없으나

碧水丹山信有緣 벽수단산신유연

벽수단산은 참으로 인연이 있었네

퇴계(退溪) 선생은 청송백학시로 이상적인 세계로서 청송을 노래하였다.

'청정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채 '명품 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청송'은 단순히 바라보는 자연이 아닌

자연과 하나 되는 즐거움이 있는 도시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가족여행지 청송으로 Going~





주산지

약 300여년의 세월을 머금은 '주산지'는 주왕산 깊은 자락을 따라 흐르는 물이 모여든 저수지다. 저수지 한가운데는 붉은 왕버들이 터죽대감이 되어 머릿결을 살랑이고 있다.

'주산지'는 조선 경종 원년(1720년) 8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0월에 완공된 농업용 저수지다. 길이 200m, 너비 100m, 수심 8m의 이 산중 호수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바닥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한다. 지역 농민들은 이 호수에 의지하며 살아왔다.

주산지는 주왕산 영봉에서 뻗어 나온 울창한 수림에 둘러싸여 한적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파란 하늘과 울창한 숲의 하모니가 만들어내는 경치가 그야말로 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예술작품이라 할 만하다.

가을 단풍이 물든 주산지를 용이 승천한다는 주왕산 별바위가 왼편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따금씩 수면 위로 봉어가 튀어 올라 퍼덕거리고 바람이 지난 버드나무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주는 바람소리를 낸다.

150년 된 30여 그루의 왕버들 고목은 주산지의 비경을 완성시켜준다. 숲속에서 다른 나무와 경쟁하지 않고 호숫가를 비롯한 물 많은 곳을 택해 자란다는 나무. 물에 잠겨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왕버들과 꼬물꼬물 피어오르는 새벽 물안개가 만날 때면, 주산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비스럽고 영롱한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된다. 이런 특유의 풍광 때문에 주산지는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주산지의 사계를 아름답게 담아내어 큰 호평을 얻은 바 있다.

'청송'하면 주왕산을 빼놓을 수 없다. 주왕산 한 자락에 자리 잡은 주산지는 환상적인 비경으로 손에 꼽히는 곳이다. 지정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되는데, 휠체어나 유모차도 무리 없이 오를 수 있어서 노약자와 함께해도 부담이 없다.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주산지길 163(이전리 87)

문의 : 054-873-5300

홈페이지 : <http://juwang.knps.or.kr>



주산지



주산지 왕버들



절골계곡

주산지 바로 근처의 절골계곡은 주왕산의 남쪽으로 흘러내린 계곡으로, 원시적인 비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찾는 이들이 많지 않아 한적한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철 깨끗한 물이 흐를 뿐 아니라, 죽순처럼 우뚝 솟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별천지와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름다운 산세가 주왕산의 본 계곡인 주방계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 계곡은 길이가 약 10km에 이르러 노약자와 함께라면 만만치 않다. 전체 코스를 돌아보기 힘들다면 계곡 입구 근처에서도 계곡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옛날에는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사라지고 없다.

주소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진리 77-1
문의 :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054-870-6240 /
주왕산사무소 054-873-0014~5

백석탄

고와리 계곡의 백석탄(白石灘)은 놀랍다. 마치 하얗게 눈 내린 알프스의 일부를 가져다 놓은 것 같다. 새하얀 자갈과 바위들은 눈이 내려 쌓인 것과는 또 다른 풍광을 보여준다. 투명한 하얀 빛깔은 방호정(方壺亭) 맑은 물에서 목욕을 했다는 선녀의 옷자락 같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직접 보아야 한다.

전래에 따르면 경주 사람 김한룡(金漢龍)은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시냇물에 반해 고계(高溪)라 하였고, 그의 부친인 대양 김몽화(金夢和)가 병자호란으로 순절하자 갑옷과 투구를 이곳에 묻었다고 한다. 그 후 그곳을 장군대로

부르고 있다. 선조 26년(1593)에는 고두곡(高斗谷)이란 장수가 왜군(倭軍)에게 부하를 잃고 비탄에 잠겨 백석탄을 지났는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워 한동안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달래며 '고와동'이라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조어대(釣魚臺) 밑으로는 가사연(歌詞淵)이 있어 옛 시인들이 이곳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산자수명함을 노래했다고 하며, 백석탄을 팔경(八景)으로 낮추어 영탄한 한시(漢詩)는 지금도 애송되고 있는 바, 그 한시는 다음과 같다.

金剛飛瀑 금강비폭 浮石澄潭 부석정담
가히 금강의 폭포요 부석의 연못이구나
清灘洗耳 청탄세이 筆峰鷗宿 필봉구숙
맑은 여울에 귀를 씻고 붓 같은 필봉 위에는 물새들이 잠드네
紫霞洞天 자하동천 金華石室 금화석실
가히 자화동 바위굴 하늘이요 금화산 석실이구나
將軍石壇 장군석단 花田蝶舞 화전접무
장군은 석단에 잠들고 꽃밭에서는 나비들이 춤추네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문의 : 청송군청 문화관광과 054-870-6240, 870-6244



송소고택

새하얀 자갈과 바위들은
눈이 내려 쌓인 것과는
또 다른 풍광을 보여준다.
투명한 하얀 빛깔은
방호정 맑은 물에서
목욕을 했다는 선녀의
웃자락 같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직접 보아야 한다.



백석탄



청송 송소고택은 조선시대 영조 때 만석(萬石)의 부(富)를 누린 심처대(沈處大)의 7세손 송소(松韶) 심호택(沈琥澤)이 호박골에서 조상의 본거지인 덕천동에 이거하면서 지었다고 전하는 곳으로, 1880년경에 건립되었다.

우측에 작은 사랑채가 있고 그 뒤로 안채가 있다. 안채는 전체적으로 'ㄷ'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청마루에는 세살문 위에 빗살무늬의 교창을 달았다. 건물마다 독립된 마당이 있으며,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등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별당은 두 채인데, 하나는 대문채이고 또 하나는 별당으로 정면 네 칸, 측면 두 칸이다.

왼편으로 송정고택이 있다. 1914년에 지어진 이곳은 심호택의 차남인 송정 심상광의 살림집이다. 송소고택과 연접해 있고 안채·사랑채·별채가 독립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이다. 이 집에는 지금도 주인장이 주거하며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여 차를 대접하기도 한다. 원한다면 고택에서 숙박 체험을 할 수도 있다. 방마다 숙박비가 다르므로 송소고택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 취사는 안 되며,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면 아침식사가 제공된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50호(2007.10.12 지정)
주소: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76번지

추천코스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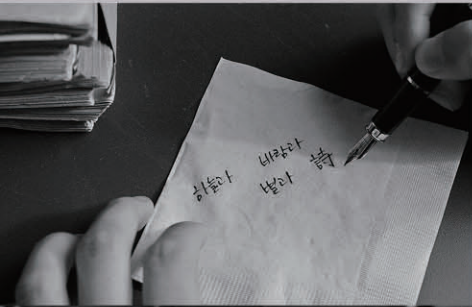
- 정오:** 달기약수터
(인근 음식점들의 대표적인 메뉴인 닭백숙으로 점심식사)
2시: 송소고택
4시: 객주문학관, 장난끼공화국, 청송 솔기온천 중 택

2일

- 아침 7시:** 주산지
9시: 절골계곡
정오: 송이가든(점심식사)
1시: 청송로컬푸드센터
(특산품 구입+점심식사 샵샵가 가능)
2시: 백석탄계곡
4시: 방호정유원지

- Tip. • 주산지: 해가 뜨는 시간 환상적인 물안개 풍경
• 청송로컬푸드(054-874-7117): 청송의 다양한 특산물을 현지가로 한자리에서
• 송이가든(054-874-0066) : 송이버섯전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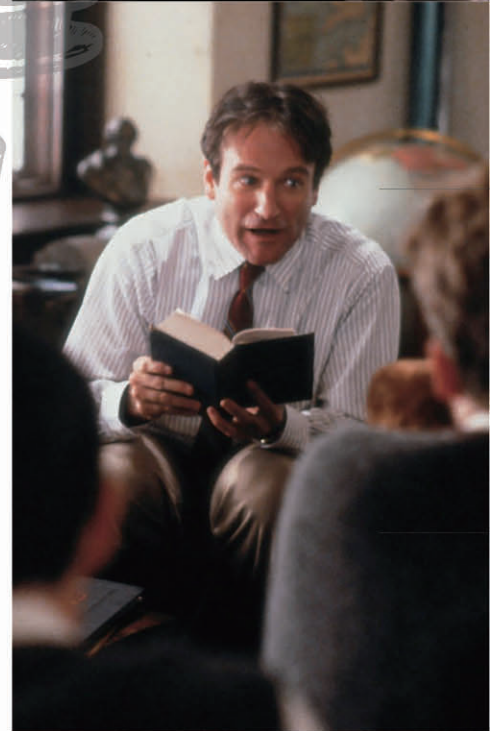


시(詩), 스크린에서 날개를 펴다



“시 한 편 읽어본 것이 언제가요?”
이런 질문에 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먹고사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듯하
기만 해서...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시
와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시는 정말
감상에 빠진 소수의, 쓸모없는 뜬구름 잡
는 얘기일 뿐일까. 여기, 시의 가치를 돌아
보게 하는 영화 두 편이 있다. 지금부터는
복잡한 생각은 한쪽으로 미뤄두기를. 시를
감상할 때처럼 영화 자체에 빠져보기 바란
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나.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구글 이미지



엄혹한 시대, 그래서 더 밝게 빛났던 순수한 영혼 동주

1945년 후쿠오카 수용소, 흑백 화면에 한 남자가 담긴다. 수의(囚衣)를 입고 움츠린 생기 없는 뒷모습이다. “길림성 화룡현 명동촌 출생.”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늘 이름을 올리는 시인 윤동주, 27살의 청년 동주(강하늘 분)다.

영화는 짓지 않은 죄를 인정하길 강요당하는 후쿠오카 감옥의 동주(현재)와 고향을 떠나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하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는 동주(과거 회상)로 나누어 진행된다. 회상 속 동주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이가 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형 송몽규(박정민 분)다. 영화는 제목을 <몽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동주보다는 몽규가 더 돋보이도록 그려진다. 동주보다 먼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가 하

면 연희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토제국대학에도 어렵지 않게 입학하는 다재다능한 인물. 몽규는 동주에게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자 일생의 라이벌이기도 하다. 영화는 나라를 빼앗기고 글을 잃은 조국에서 시를 쓰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동주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위해 단호하고 강한 실천력을 보이는 몽규를 비춘다. 여기에 <자화상>, <쉽게 씌어진 시>, <별 헤는 밤>, <바람이 불어>, <아우의 인상화>, <참회록>, <새로운 길>, <흰 그림자>, <병원>, <공상>, <사랑스런 추억>, <내일은 없다>, <봄> 등 13편에 이르는 윤동주의 시가 배경처럼 덧입혀진다.

다시 후쿠오카 수용소, 각자의 방법으로 시대에 저항하던 두 청년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자백을 강요당한다. 일제가 만들어낸 죄 아닌 죄. 동주의 생기를 잃은 눈동자엔 후회와 참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흐른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바라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6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볼까.
...(중략)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6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저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 못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찢어버린다. 동주와 같은 상황에서 몽규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학생들을 모으고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억울해서 서명을 하겠다’며 절규한다. 둘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여 보여준 이 장면에서 영화는 클라이맥스에 오른다.

조국을, 그리고 동주의 시를 사랑하고 지켜주려 했던 몽규와 시대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서 시 쓰기를 바랐던 스스로가 부끄러워 고뇌했던 동주. 두 청년의 짧았던 생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시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동주의 죄책감을 어루만져준 정지용 시인(문성근 분)의 대사가 깊은 울림을 준다.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건 쓰레기야! 시는 평가할 수 없거든. 그 쓰레기를 찢어버려!”

시의 완성도를 계량화하는 교과서를 쓰레기라며 찢어버리라는 교사 존 키팅(로빈 윌리엄스 분). 뿐만 아니다. 그는 손수 쓰레기통을 들고 망설이는 학생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기까지 한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기숙학교 ‘웰튼 아카데미’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의 등장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이다. 입시 위주의 수업방식과 규율을 한참 벗어난 키팅은 학생들 하나하나를 교단 위에 올라서보게 하여 권위를 깨버리고, 주입식 강론보다 함께 둘러앉아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느닷없이 바깥으로 불러내어 옛 선배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낯선 말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 모두는 규율 아래 억눌려 있던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주체성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엉뚱하고 다소 난해해 보이는 교육방식에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바랐던 배려와 자신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현재)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시선이 담겨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는 이처럼,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독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학생들을 일깨워주려는 교사 키팅과 학생들이 일련의 사

To the Virgins, to Make Much of Time 중

- 로버트 헤릭(Robert Herrick)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할 수 있을 때 장미 꽃봉오리를 모우라*

*Old time is still a-flying;
나이 든 시간은 끊임없이 달아나고 있나니*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오늘 활짝 웃고 있는 이 꽃이
내일이면 죽어갈 것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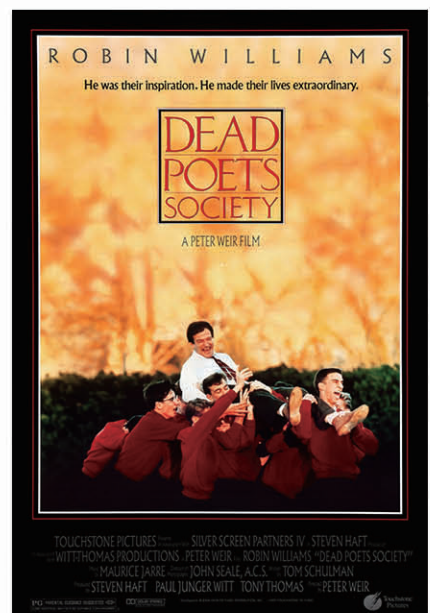
건을 겪으며 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시와 소설을 인용한 다양한 명대사들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다.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 너희들이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숨을 멈추고, 차가워지고, 죽게 되거든. 그러니 가능한 한 특별한 너만의 인생을 살아.”

“내가 이 위에 선 이유는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믿기지 않으면 너희도 한번 해보렴. 어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해. 바보 같고 틀린 일처럼 보이는 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인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의학, 법률, 경제, 기술 같은 건 삶을 유지하는 데 분명 필요해. 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 그 자체란다.”

키팅의 시도들은 당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의 교육방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닐(로버트 손 레오나드 분)의 자살 사건은 더구나 키팅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몰고 간다. 그러나 영화 마지막,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명장면 책상 위에 올라가 그를 배웅하는 학생들에서 키팅은 다시 희망을 본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이 짧은 대사와 학생들의 눈빛에 더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



가시는

걸음걸음

시에

취하여

대운로

시비(詩碑) 거리



< 국화 옆에서 > 서정주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줄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장바닥 초벌채는
그렇게 들었나 보다.

한 줄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도관 안구들 속에서
또 그렇게 들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아터
미안 먼 길들의 뒷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가을 앞에 선
내 부름같이 별과 꽃아.

노모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만에 두서리가 차려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낙화 > 이형기

산 유화

- 김소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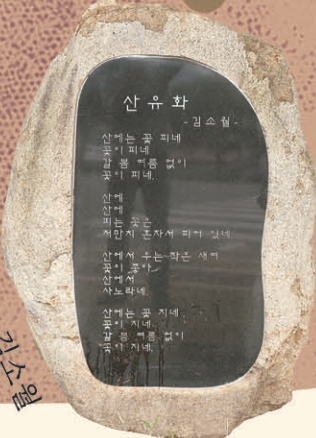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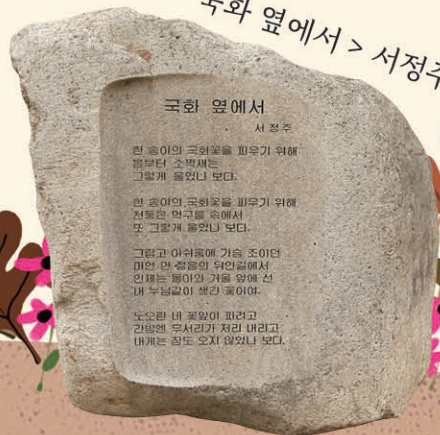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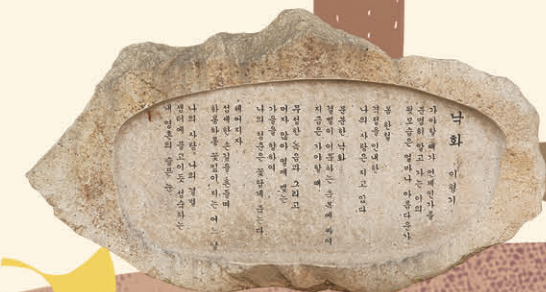
산에는 꽃 피네
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서 주는 맑은 새벽
산에서 주는 맑은 새벽
산에서 주는 맑은 새벽
산에서 주는 맑은 새벽.

산에는 꽃 피네
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 산유화 > 김소철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37

“시를 쓴다는 건 내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시와의 산책 시(詩)낭송회’ 남경희 시인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면 양산 서창공장 인근
덕계 평산교회 비마프커피숍으로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든다.
2년째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시낭송회를 찾는 사람들이다.
기타 선율과 아름다운 시어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시낭송회.
메마른 감성이 촉촉이 젖어드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온
남경희 시인을 만나
시와 함께하는 삶에 대해
들어보았다.

남 경 희

서울 중앙지 문학공간
시 부문 신인상 수상(2014년)
부산 시단 주최
전국 시낭송 대회 우수상 수상(2015년)
첫 시집 <수레국화> 출간(2015년)
시집 <수레국화>
월간 국보문학 청솔문학상
최우수상 수상(2016년)



삭막한 현대사회에 감성의 비를 뿌리다

‘시와의 산책 시낭송회’는 벌써 2주년을 맞이했다. 시의 불모지라 불리던 동양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연 낭송회. 그 계기로 문화를 즐기려는 활발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니 남경희 시인으로서도 뿌듯한 일이다. 양산에서 낭송회를 기획하게 된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시인은 시가 읽혀지지 않는 요즘 시대가 가장 큰 계기였다고 말한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삭막한 세상이에요. 저와 동료들은 문학과 동떨어진 삶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회의 어둠과 아픔의 치유가 문학으로 정화된다고 믿거든요. 우리가 시를 낭송(朗誦)해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양산 지역에서 문화봉사활동을 하는 마음으로 기획한 일에 평산교회 강진상 목사와 이유석 장로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먼 길 마다 않고 달려와 재능기부로 무대를 채워주는 동료들도 남경희 시인의 든든한 후원자들이다. 지난여름에는 성우하이텍 도종복 전무의 도움으로 직원들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어 지역에 홍보도 되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소프라노 공연과 색소폰

연주, 기타 연주 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낭송회. 1년쯤 지나서는 의미 있는 활동에 감사하다며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역 이웃들의 반응이다. 시를 접하면서 잃어버린 감수성을 찾게 되었다며, 시낭송회를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남양산 쪽에서도 시낭송회를 주최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강연 요청과 낭송회 요청 등으로 짬을 내기 어렵지만 도전해 볼 참이다.

“시는 우리의 삶 자체예요. 그래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고달픈 삶에 위로가 되고자 했던 처음 의도대로 점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우가족 여러분도 어려워 마시고 발걸음 한번 해보세요.”

수레국화

어디서 보았던 얼굴인지
나를 보고 아는 척한다
나의 눈동자에 교차하는 얼굴 하나

새파랗게 질린 그 입술
파리하게 온몸을 떨고
귀리죽 한번 먹지 못한
건조한 살빛으로 웅크린 너

문밖은 이미 저세상의 것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고독한 그 언덕에 핀
너는 수레국화

갈맷빛으로 물들여진 하심下心
더불어 깨닫는 날들
어제의 모습과 다가올 날을
고귀한 자세로 행복을 꿈꾸는
수레국화 한 송이.



산골 소녀의 꿈, 불혹을 지나 꽃 피우다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하지만 어릴 적에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산골 소녀였다는 남경희 시인. 많은 형제자매 가운데서도 유독 말이 없던 그는 다락방에 혼자 앉아 빗소리를 듣고, 글을 쓰고, 사색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글 쓰는 일은 그가 스스로에게 주는 위로이자 자아를 성장시키는 반복된 훈련이었다.

“국어과목을 특히 좋아했어요. 철없고 어린 나이인데도 ‘국어사랑’이 ‘나라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올 만큼 순수했죠.”

조금 더 자라서는 자신이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친구나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를 담은 쪽지도 곧잘 전해주었다. 어린 시절의 그 시간들이 시인 남경희를 만든 자양분이었다. 시골에서 자랐기에 자연과 가까워졌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읽고 쓴 글들이 감수성을 키웠으며, 다른 사람에게 글로서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꿈을 키웠다. 그리고 불혹이 지난 적지 않은 나이에 시인은 첫 시집 <수레국화>를 손에 들었다. 본인의 의지와 함께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이뤄내지 못할 일이었다.

“최고의 지원군은 남편이에요.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의 지지 덕분입니다.”

표제시인 ‘수레국화’는 독일의 들국화다. 어떠한 척박한 장소에서도 피어나는 이 꽃의 꽃말은 ‘행복’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의 무게와 아픔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희망과 위로가 되어서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목으로 선택했다.

‘詩’가 만들어낸 사람이 많은 세상을 꿈꾸며

모진 말과 헛된 마음들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듯 각 박해진 세상이다. 시인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남경희 시인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다르기를 꿈꾼다. 자신의 시간을 쪼개어 시를 알리고 더 많은 곳에서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런 마음의 연장선상에 있다. 좌절의 시기가 왔을 때 용혜원 시인의 시 ‘절망이 끝날 때’가 남경희 시인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이면우 시인의 ‘그 젖은 단풍나무’를 통해 시심(詩心)을 단단히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가 그런 존재이기를 바란다.

“‘사람이 만들어낸 책보다, 책이 만들어낸 사람이 많다’라는 글을 우연히 읽었습니다. 저는 ‘시가 만들어낸 사람이 많은 세상을 바랍니다. 모질고 삭막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시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사는 세상이 더 따뜻해졌으면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신은 난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큰 거인이 되라고 한다. 하지만 나 자신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학교가, 그리고 우리 사는 사회가 바로 선다. 복잡하고 어려운 책이 힘들다면 시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이와 함께 시 한 편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시를 읽는 저녁, 아이에게도 스스로에게도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시낭송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도전해 볼만 하답니다. 성우가족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

물빛이

맑게 흐르는 개울에 앉아
작은 발 담그고
쉬어가는 구름 한 점 따다
배고픈 영혼을 달래고
꿀처럼 달콤한 꽃잎을 물어
향기가 가득한 시인이고 싶다

빛 고운

에메랄드 하늘 그곳에 서서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도 그려 보고
추억이 된 인연들의 이름도 적어 보고
내가 사랑하는 시인의
시를 읽으며 울기도 하고 싶다

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 시와의 산책 詩낭송회

일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산시 평산 중앙로 57 '비마프커피숍'(덕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시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제품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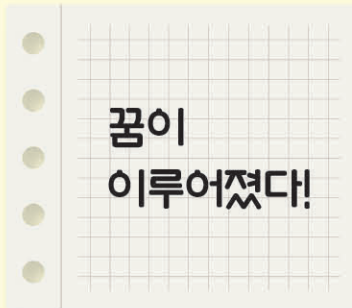
낮선 듯 낯설지 않은, 장수제품의 특별한 변신

|||||

하이브리드. 자동차업계에서는 익히 들던 이 말이 최근 식품마케팅 분야에서 단연 화제다. 장수제품을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키거나 2개 이상의 제품을 결합한 마케팅을 전개하며 화려한 변신 중인 것.

익히 알던 제품들의 톡톡 튀는 변신, 맛과 재미를 동시에 잡은 독특한 제품들을 만나보자.

사진 출처: 롯데제과 facebook, 해태제과 facebook, 농심 face book, 휠라코리아 facebook, spao facebook



‘거꾸로 수박바’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인터넷을 중심으로 우스갯소리처럼 떠돌던 얘기가. ‘꿈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등등. 스테디셀러 아이스크림 수박바의 위아래를 뒤집은, 말 그대로 역발상이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박바의 초록색 부분은 양이 적어서 아쉽고 아껴 먹게 되는 이른바 ‘꿀맛’ 구간이다. 롯데제과가 올해 출시한 ‘거꾸로 수박바’는 꿀맛 구간을 늘였으면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발상의 전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출시 54일 만에 450만 개가 팔린 데 이어, 원조 수박바도 한 달 매출이 86%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뒤이어 바 제품을 파인트 컵 형태로 리뉴얼한 제품과 슬러시 형태의 파우치 제품이 출시되어 화제를 이어갔다. 돼지바를 콘 형태로 변형한 ‘돼지콘’은 원조 아이스크림의 아성을 넘보는 인기상품으로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기존 제품의 맛을 차용하여 다른 제품으로 내놓은 식품들이 또한 SNS를 떠들썩하게 했다. 인기 스낵인 조리퐁, 카라멜콘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에스프레소 맛과 결합한 '조리퐁 카페라떼'와 '카라멜콘 땅콩 카페라떼', 스테디셀러 캔 커피 레쓰비에서 착안한 '레쓰비빵', 바나나킥 특유의 향을 살린 '바나나킥 우유'가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꼭 먹어봐야 할 제품으로 이름을 올렸다. 포장디자인을 요구르트 병 모양으로 한 '요구르트 젤리', 인기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젤리 형태로 내놓은 '스크류바 젤리', '수박바 젤리', '꼬깔콘 젤리' 등도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괴작이다', '스치듯 안녕할 맛', '의외로 괜찮다' 등으로 제각각이지만, 신제품 후기를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며 화제 물이에는 확실히 성공했다.

익숙한 맛?
색다른 맛!

신고,
입고,
쓰고!



장수제품들의 변신은 식품 업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입고, 신고, 쓰는 생활용품에 접목한 컬래버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출시된 '메로나' 컬래버레이션 제품들. 메로나 특유의 연두색을 입힌 운동화와 슬리퍼에 이어 모자, 양말, 티셔츠 등이 잇달아 출시되어 '메로나' 자체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친밀감을 자극한 마케팅의 성공이었다. 이어 국민 과자로 불리는 새우깡도 티셔츠, 예코백, 양말 등 45가지 패션 아이템으로 출시되었고, 인기 아이스크림과 의류브랜드의 컬래버가 이어졌다. 식품업계와 의류업계를 넘나드는 화제의 제품들, 그 바탕에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다. 소비자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인기 제품을 다른 형태로 내놓아 해당 제품을 즐겨 사던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 장수제품들에 익숙한 30~50대와 새로운 식품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동시에 공략했던 아이디어 덕분에 2017년 여름이 더욱 풍성해졌다.🔥



역사의 역사 속으로

어느덧 창립

40주년을 맞은 성우하이텍.
성우하이텍이 태동했던
1977년부터 4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어떤 희로애락이
모여 역사가 되었을까?

성우하이텍의 40년 역사를
10년 단위로 나누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이번 호는 그 마지막 시간!
2007년~2017년
까지의 역사를 담았다.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
“그해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문득 궁금증이 일 때,
자녀가 물어볼 때
함께 꺼내어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2007

사건

- **지사공장 설립(부산 강서구 지사과학단지)**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기업 부문) 수상**
- **제33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은탑산업훈장**
-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및 10·4 선언
- 대법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무죄 선고
- 충청남도 태안 기름유출 사고
- 산업기능요원 제도 악용한 엄청난 수의 연예인과 정치인 자제들이 무더기로 군대에 재입대함.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발생 (분당샘물교회)
- “국기에 대한 맹세” 문구 변경
- 새 천 원권 지폐와 만 원권 지폐 유통
-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됨: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0년 간 집행이 없음.

해외

- 애플, 맥월드 2007에서 최초의 정전식 멀티터치 스마트폰인 아이폰 공개

문화

- 후크송 전성시대의 시작: 원더걸스의 ‘Tell me’ 열풍 후 후크송 범람(빅뱅의 ‘거짓말’, 소녀시대 ‘Gee’, 아이유의 ‘Boo’ 등. 그 중 정점은 샤이니의 ‘Ring Ding Dong’ 등)
- KBS <1박2일> 시작: 초기에는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컨셉이 MBC 모 프로그램 모방 논란도 있었으나, 점차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기 시작함.

2008

사건

- **성우과기(심양)유한공사 설립(중국 선양)**
- **성우하이텍 RUS 설립(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 박왕자씨 피살로 금강산 관광 전면 금지
-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시행 : 호주제는 역사 속으로

해외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어 세계금융위기로 발전
-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
-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대한민국 야구 금메달(남자 단체 종목 사상 최초 구기 종목 1위)



- 중국, 쓰촨성(사천성) 대지진 발생 (사망 69,227명 / 부상 374,653명 / 실종 17,923명)
-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당선: 2012년 재선

문화

- 송례문(국보 제1호) 방화 사건
- 이소연, 러시아에서 소유즈호를 타고 우주여행
- 소설가 박경리 선생 작고: 소설 『토지』
- 탤런트 안재환, 최진실 잇따른 자살

2009

사건

- **SHI 설립(인도 첸나이)**
- 노무현,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유행
- 용산 참사: 경찰 진압 과정에서 6명 사망, 24명 부상
- 친일인명사전 발간
- 김수환 추기경 선종: 최초의 한국인 카톨릭 추기경
- 강호순, 실종 부녀자 7명 연쇄살인으로 검거
- 아고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 선고
- 대법원, 연명치료 중단(‘존엄사’)을 허용하는 판결
- 5만 원권 지폐 발행: 신사임당 초상 & 어몽롱의 「월매도」
- 나로호 발사 실패

해외

- 북한, 2차 핵실험
- 미국, 마이클 잭슨 타살

문화

- 독립영화 <위낭소리> 290만 명 관람: 이전 독립영화 관객수 최다기록은 <원스> 22만 명으로 10배 이상 기록



- 영화 <아바타> 개봉: 1,300만 국내 관객 동원으로 외화 역대 1위
- 제2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개최: 대한민국 준우승

2010

사건

- **SSP 설립(인도 첸나이)**
- **TRUE COMPANY 금상 수상 (고용노동부)**
- **코일센타 준공 (부산 기장군 장안단지)**
-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로 1968년도 이래 최악의 남북 관계
- 한국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선종: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자서전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 법정 스님 열반: 저서 『무소유』, 『산방한담』 등
-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길태 검거
- 거가대교(부산광역시 가덕도~경남 거제시) 개통
- 좌측통행에서 공식적으로 우측통행으로 바꿈

해외

- 아이티 칠레, 리히터 8.0 넘는 대지진 발생
- 중국, 2사분기 일본의 경제규모 추월
- UAE, 세계에서 최고 높이 마천루(828m) 부르즈 칼리파 개장

문화

- 김연아, 밴쿠버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에서 넘사벽 세계 신기록 점수로 금메달
-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전현직 프로게이머 11명 연루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한민국 사상 최초 원정 16강 달성. 부부젤라의 존재를 전 세계에 알림.
-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중 3명이 탈퇴하며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계약 문제가 이슈화됨.
- 카카오톡 출시

2011

사건

- **연태성우가기차부건유한공사 설립 (중국 옌타이)**
- **UZ SUNGWOO 설립(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 **제3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대상(대통령단체표창) 수상**
- 정체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자 발생.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밝혀짐.
-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대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
- 종합편성채널 JTBC, TV조선, 채널A, MBN 개국
- 아덴만 여명 작전: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대한민국 선박 구출
- 청와대, 국회, 국민은행,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다음 등 40여 개 웹사이트가 DDoS 공격을 받음.
- 농협 전산 사고
- 저축은행 줄줄이 도산
- 수도권 폭우(‘우면산 산사태’ 포함)로 사망 35명 / 실종 5명 / 이재민 4,566명 발생
- 울산, 94년부터 96건의 연쇄방화를 일으킨 봉대산 불다람쥐 검거
- 부산, 대한민국 최초 경전철 도시철도 4호선 개통

해외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심근경색으로 열차에서 급사했다고 북한이 발표
- 아랍,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 혁명이 곳곳에서 성공을 거둬(튀니지, 이집트)
-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시민군에 의해 사살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리히터 9.0규모의 대지진)
- 오사마 빈 라덴 사살
- 미국, 스티브 잡스 사망

문화

- 대구광역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 우사인 볼트는 100m 결승에서 실격
- MBC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 PC방 두꺼비집을 내려도 꿈쩍 말아야?
- 표준어 39개 추가: '짜장면'은 표준어가 되었다!
- 국민MC라 불리던 강호동, 잠정은퇴 선언
- 프로축구, 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

2012

사건

- 독일 WMU社 인수
-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대법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 세종특별자치시,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출범
- 말뚝테러 사건 발생 : 극우 일본인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으로 테러를 가한 사건
- 여수, 세계 박람회(여수EXPO) 개최
- 12월 21일, 마야 달력에서 13번째 박툰(baktun)이 끝나는 날로 이 날이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2012년 지구종말설 유행

해외

- 미국 오바마, 러시아 푸틴,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당선
- 중국,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임명
- 런던 올림픽 개최: 대한민국 종합 5위
- 미국, 휘트니 휴스턴 사망: 영화 <보디가드>

문화

- 싸이, 강남스타일 발표: 전 세계를 강타
- 6월 23일 오후 6시 36분,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
- 류현진, LA Dodgers와 계약하면서 역대 최초 KBO-MLB 직행사례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2013

사건

-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본상 수상
-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취득 (산업통상자원부)



- 박근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취임
- 국정원 여론조작 논란
-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19세로 변경(기존 만 20세)

해외

- 북한, 3차 핵실험
- 교황 프란치스코 선출
-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발생

문화

- 송레문 복구



- 과자 과대 포장 금지: 빈 공간이 35% 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한국의 모든 영화가 디지털로 상영되기 시작
- 프로농구 승부조작 사건

2014

사건

- 삼영핫스탬핑 설립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대기업) 선정
- 독일 WMU B Gmbh 설립 (WMU Bavaria Gmbh)
- 성우하이텍 멕시코 설립 (SUNGWOO HITECH MEXICO S.A de C.V)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 세월호 참사 (4월 16일)
- 부산항대교 개통
- 부산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개장
-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병영부조리로 의무병 사망)
- 제22보병사단 총기 난사 사건(사망 5명, 중경상 9명)
- 특전사 하사 2명, 포로체험 훈련 도중 사망
- 프란치스코 교황,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 방문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 해산 판결
-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건
-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집중 폭우

해외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 장악
- 브라질, 2014년 월드컵 개최
-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문화

- <겨울왕국>, 국내 영화 역사상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서 천만 관객 돌파 영화



2015

사건

- **창주성우기차부건유한공사 설립(중국 창주)**
- **중경성우해특기차부건유한공사 설립(중국 중경)**
-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 인천광역시 영종대교 100여중 추돌 사고
-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2명 사망, 2명 중상, 자살)
- 메르스 유행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발생
-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 국회 통과
-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 우편번호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구역 번호로 대체 (6자리 → 5자리)
- 부산 서면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
-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
-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발표

해외

- 프랑스, 샤를리 엽도 총격 테러 사건
- 그리스, 국가부도 선언
- 일본, 하시마 섬이 조선인 강제 노동 사실을 명시한다는 조건에 한국 측이 동의함으로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등재 확정되자마자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드는 등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임.
- 유럽 난민 사태 중에 시리아의 3살짜리 이민자인 아이이라 쿠르디가 숨진 채 해역에서 발견된 사진이 세계인을 울림.
- 중국, 2자녀 정책 도입(1가구 1자녀 정책 종료)

문화

- 고려시대 고선박 발굴 (안산시 대부도)
- 2015 WBSC(World Baseball Softball Confederation) 프리미어 12 개막 : 대한민국 우승

2016

사건

- **2015년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 **국내외 특허 666건 등록**
-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의안 국회 통과(2016년 12월 9일):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2017년 3월 10일)
- THAAD 배치 논란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무제한 토론
- 이세돌 vs. 알파고 : 알파고의 승리(4:1)로 4차 산업혁명이 성큼 다가왔음을 전 세계인이 실감
-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발생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영남권 신공항 계획 백지화, 김해국제공항 확장이 대안으로 결정
- 경주시, 수차례 지진 발생

해외

- 북한, 4차, 5차 핵실험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마약과의 전쟁 선포
-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 미국, MLB(Major League Baseball) 시카고컵스(Chicago Cubs)가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문화

-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 부커 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결정
- 게임 '오버워치', 정식서비스 시작

최근 10년(2007년~2016년)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전 30년보다 분량은 적었음에도, 근래 10년은 기록된 양도 많고,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건도 많아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간략한 설명이 불씨가 되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하이텍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4차례(『별을 쏘다』 Vol. 11, 12, 13, 14)에 걸쳐 성우하이텍과 국내·해외의 40년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애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7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

이색적이고 건강한 빵을 찾아가다

빵(포르투갈어: pão 빵).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밀가루와 물로 만들어진 반죽을 구워서 준비한 일반식”이라고 소개한다.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이제는 단순한 일반식이 아닌 식문화를 주도하는 한 장르가 된 베이커리 전문점. 특별함을 입은 이색 베이커리를 소개한다.



인기메뉴 감장고무신



브레드나인 (BREAD 9)

천연발효종으로 굽는
건강한 빵

울산대공원에서 5분거리에 위치한 동네 빵집 '브레드나인(BREAD 9)'은 매우 작고 소박하다. 입구가 마치 유럽 동화 속 빵가게를 보는 듯하다. '브레드나인'이라는 가게명은 주인장이 울산에서 아홉 번째 제과기능장이 된 것을 기념하여 지었다. 이름에 담긴 특별함만큼이나, 크지 않고 화려함도 없어 보이는 이 베이커리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 특별함은 이색된 기능장의 확고한 철학에서 기원한다. 바로 '많이 팔리는 빵보다 건강한 빵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 브레드나인은 오로지 유기농 밀가루만 사용한다. 설탕도 유기농

설탕을, 소금은 꼭 천일염을 쓴다. 무엇보다 이스트 대신 직접 배양하는 '천연발효종'으로 반죽을 만들어내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건강한 유기농빵을 선호하는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빵은 굽기가 무섭게 동이 난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으니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다. 브레드나인의 빵은 채식을 즐겨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 100% 통밀빵과 호밀빵, 납작한 치아바타를 둥글게 만든 하쿠나마타타 등은 우유도 쓰지 않아서 완전 채식주의자들의 비건식에 부합한다.



맛: ★★★★★
특별함: ★★★★★
접근성: ★★★



울산 남구 중앙로 8
일요일 휴무 T. 052-227- 9910



경주시 금성로 182번길 17-4
주말 휴무 T. 070-7377-9147



기와양과점

경주의 핫플레이스



기와양과점은 전통 한옥 외관과 특화된 크루아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경주의 핫플레이스다. 오픈 시간인 정오가 되기 전, 1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어 줄을 서기 시작한다. 1시간쯤을 기다려 드디어 맛있는 오픈 시간. 고소한 빵 냄새 가득한 대문을 들어서면 보더콜리 한 마리가 손님들을 반긴다. 무료하게 기다리던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잠시 테이블에 앉아 크루아상에 커피를 곁들인다. 커피를 주문하면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다. 첫 입을 깨우는 순간 크루아상 특유의 바삭한 식감이 입맛을 사로잡는다. 속살은 촉촉하고 폭신해 바삭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기막히다. 과하지 않고 은은한 버터 향은 입안으로 퍼지며 커피와 잘 어울린다. 금세 하나를 다 먹고 아쉬움에 입맛을 다시게 된다.

클래식 크루아상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서 1인당 2개 한정으로 판매한다니 아쉬움이 더 크다. 다행히 코코아 크루아상, 커스터드 크루아상, 말차 크루아상 등 다양한 종류의 크루아상들이 그 아쉬움을 달래준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날 구운 빵이 다 팔리면 이른 시간에도 쿨 하게 문을 닫는다. 또한 주말에는 장사를 하지 않으니 알아둘 것. 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면서 골목 안에 위치한 가게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자 지역 주민들을 배려하여 단행한 조치이다.

오래된 전통 한옥에 앉아 유럽 전통 빵을 맛보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들려볼 만하다. 📍

맛: ★★★★★

특별함: ★★★★★

접근성: ★★★

Killing Time? Healing Time!

매일 같이 쏟아지는 파도 같은 정보들,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업무,
빠르게 걸러내고 취하고 버려야 하는 판단의 연속.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과잉'이라 불릴 만치
복잡다단한 일상에 파묻혀 지낸다.
하루 10분쯤은 아~무 생각 없이
뇌를 쉬게 해줄 수는 없을까?





컬러링북을 앱으로

Coloring Book 2017

2015년 베스트셀러 도서 목록에 생각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났다. 별다른 내용도 없이 흑백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그림책, <비밀의 정원>이다. 이 책은 단순한 그림책이 아닌 '어른을 위한 힐링 컬러링북'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내세웠다. 누군가는 어릴 적 빠져 지내던 색칠공부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안티 스트레스를 떠올렸다. 흑백의 면을 자신만의 컬러로 채워가는 동안 독자들은 복잡한 생각도, 고민도, 스트레스도 잊었다. 말하자면,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활력을 키우는 정신적인 요법 '컬러 테라피(Color therapy, 색채 치료)'의 효과였다.

컬러링앱은 컬러링북의 콘셉트를 앱으로 구현한 게임이다. 식물, 동물, 인물, 건물 등 다양한 이미지에 자신만의 느낌으로 색을 입히는 재미가 쏠쏠하다. 색연필이 필요했던 컬러링북과 비교하여 편하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색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컬러링북과 달리 훨씬 화려하고 디테일한 다양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블록 쌓기

Stack

같은 패턴을 단순 조작하는 게임은 뇌를 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게임은 영어 단어 뜻 그대로 넓은 사각형 모양의 판을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게임이다. 화면상 대각선 방향으로 왔다갔다 반복하는 사각 판을 터치하여 바로 밑 블록의 윗면에 쌓으면 된다. 방향을 잘 조절하여 최대한 접하는 부분이 많도록 블록을 쌓는 것이 포인트다. 블록에 접하지 않은 부분은 잘려나가기 때문에 블록을 쌓을수록 윗부분이 점차 좁아진다. 연속으로 맞추면 피아노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들을 수 있다. 블록들이 쌓이면서 파스텔 톤의 그레데이션으로 표현되는데 그래픽 색감도 훌륭하다는 평을 듣는다. 자신의 최고 기록에 도전할 수도 있고, 다른 유저들과 점수 경쟁도 가능하다.



자연의 소리를 언제 어디서나

숲 소리

자연의 소리가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지. 실제로 정신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평온한 리듬을 들으며 잠재울 수 있다고 한다. <숲소리>는 숲속과 바다, 폭포 등 직접 찾아가서 듣기 힘든 자연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앱이다. 숲속에서 울리는 다양한 새 소리, 잔디에 내리는 빗소리, 캠프파이어 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1분에서 8시간까지 시간을 맞추어놓고 이용할 수 있다. 소리를 켜두고 눈을 감으면 마치 자연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새소리, 바람 소리 등 배경 소리의 음량도 조절할 수 있다. 🌈

또 하나의 가족

우리집 '사랑둥이'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애완'이 아닌 '반려'라는 이름의 동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정이
이제 457만 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성우가족들은 어떤 동물들과 살고 있을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고만 있어도 웃음을 유발하는 사랑둥이들, 지금부터 만나보자.



순대♀

제작1팀 박노실 차장

1년 전 정말 우연히 인연이 닿아 우리 가족에게 선물처럼 온 우리 순대.
어느새 누구보다 꽃을 좋아하는 여인이 되버렸냥~
건강히 잘 크길 바란다, 순대야~ 집사가 많이 사랑해^^



시클리드 형제들

인사노무팀 이가영 사원

저희 아버지가 하루 세끼 사료 60알씩을 손절구에
직접 갈아서 주실 만큼 애정을 쏟는 시클리드 10형제입니다.
그 정성(?)을 알아본 것인지 신기하게도 아버지만
나타나면 졸졸 따라다니면서 점프도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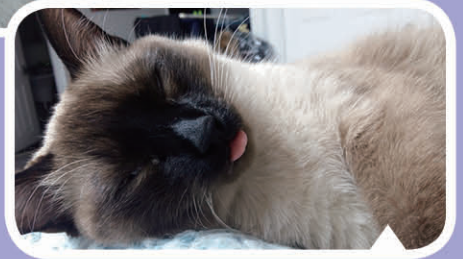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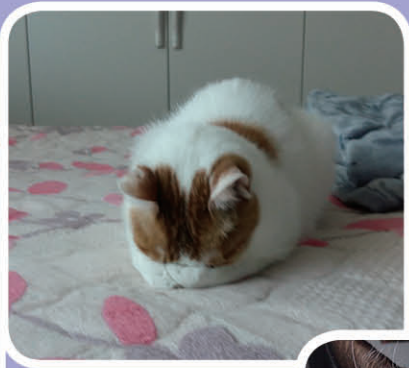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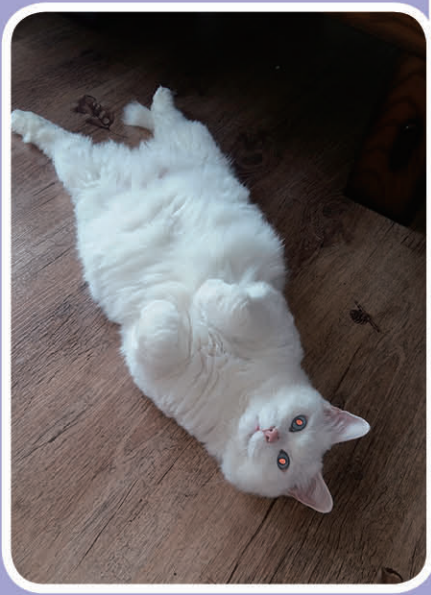


김달봉♂

아산 조립2반 김용만 조장

해외 파견 나가기 전 2개월이던 요놈,
어느새 3살이네요. 우리 달봉이 미남이지유~
우리 집 장난꾸러기 사고뭉치 대장 달봉아~
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사고는 조금만 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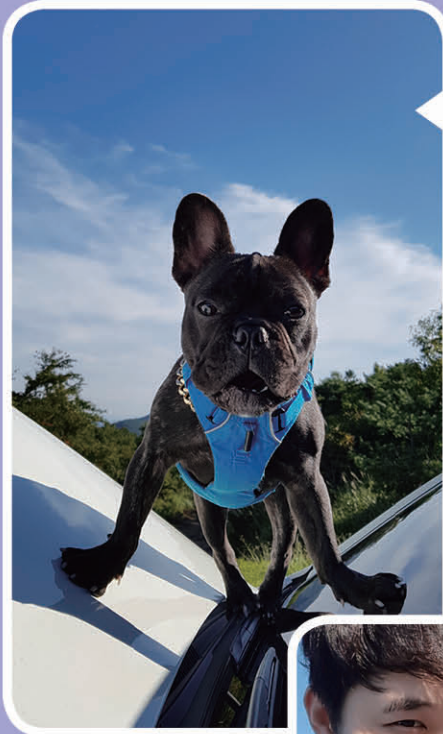




콩이♂, 낭이♀, 커피♂

지사조립계 신한식 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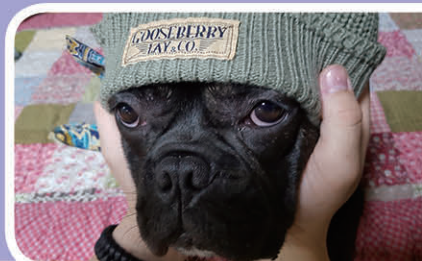
우리 집 낭이 콩이, 낭이, 커피의 요~상한 잠버릇
 나이가 많은 고로 허리가 아픈지
 똑바로 누워 자는 콩이,
 말쑥쟁이 낭이는 고개 숙이고 자고요,
 막내 커피는 혀를 내밀고 잡니다~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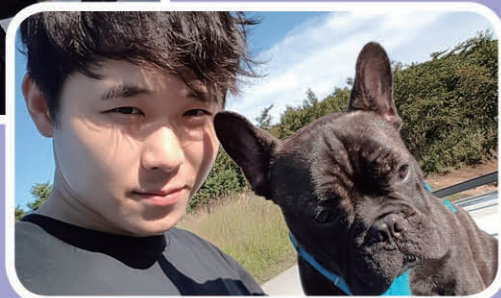
노이♂

설비기술반 임영민 기장

생긴 것과 다르게(?)
 아주아주 온순한 노이예요~
 꼬물이 때 데려와서 혼자 키우느라
 애도 먹었는데, 이젠 의젓한 성견이 돼서
 어딜 가든 저와 함께하는 제 껌딱지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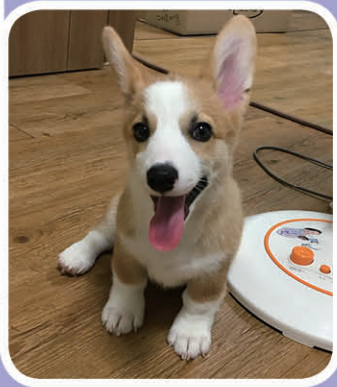


취침중...





복받으세요



삼억이♀

아산생산관리팀 이승호 과장

주인님 오기 전 까지 밥 안 먹고 버티기,
장난감 물어오기가 특기인 우리 집 귀한
자식 삼억입니다. 6년 정도 제가 업어
키우다 지금은 아버지가 키우고 있어요.



호두♂

생산기술1반 송인호 사원

꼬까옷 입혀 놓으니 귀염 매력이 레벨 업 된 우리 집 호두입니다.
물어뜯기가 특기이자 취미이지만, 순하고 착하답니다~
할머니 하소연 상대가 돼주는 듬직한 녀석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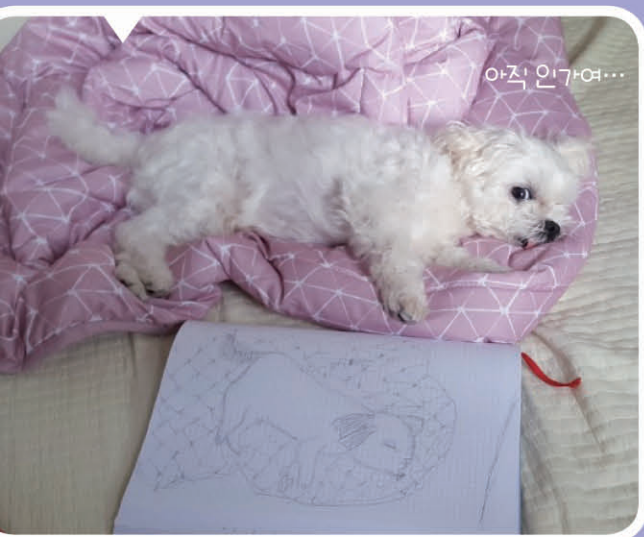
포리♂

생산사업부 박창수 이사

우리 집 막내둥이 포리, 눈망울이 맑고 아주 자~알
생겼죠? 딸아이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싶다면
한 마리를 그렸더니, 저런 표정을(부, 불만이냐?)!
참, 견주님들~ 반려동물 에티켓 잊지 말아요.



새초롬♡



아직 인가여...



용팔이♂

아산조립2반 정병채 반장

작고 약해 보이는 예쁜 외모에 속지 마시길!
주인님 간식 스틸하기가 주특기이신, 한 성격 하시는 용팔이입니다~
용팔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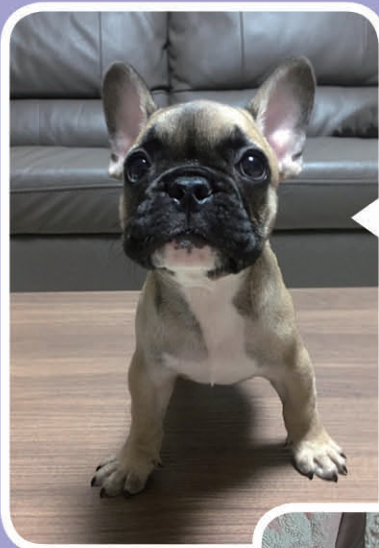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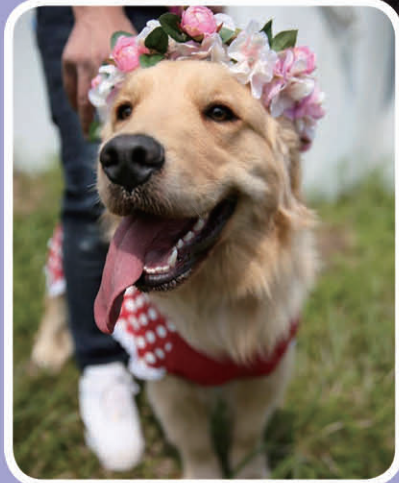
아빠랑 여행중



하리 ♀

설비기술반 김영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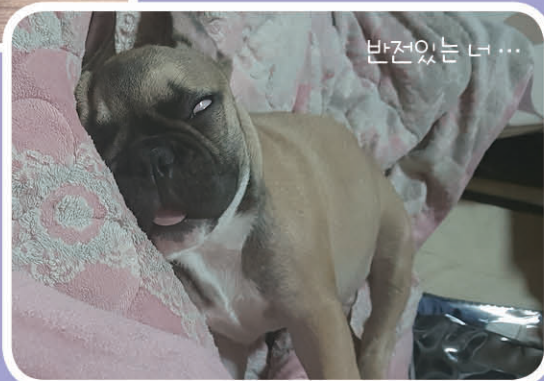
9개월 때까지 골든 전문견사에서 지낸 귀한 녀석, 한 달 내내 졸라서 겨우 가족이 되었네요~ 따로 훈련하지도 않았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리드 줄을 잡으면 절대 따라가지 않고 차도 제 차 아니면 절대 타지 않는 영리한 아이예요~ 잘 짚지도 않는 순둥한 천사견, 하리아~ 앞으로도 잘 지내자



탱구 ♂

생산기술1반 한재성 기사

프렌치볼독 탱구, 웬만한 사람은 다 반할 수밖에 없는 요 마성의 눈빛을 보세요~ 평소 위낙 잘~놀아서 잘 때는 매번 떡실신이에요 ㅋㅋㅋㅋ



반전있는 너...



엄마 콩이 & 딸 꾀순이 ♀

통합구매팀 김민수 사원

우리 가족의 비타민 콩이, 꾀순이 모녀예요~ 장성한 아들 둘이 떠난 집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콩이야, 꾀순아~ 오래오래 잘 부탁한다!



나 좀 보봐

어쩌다 붙잡힌 길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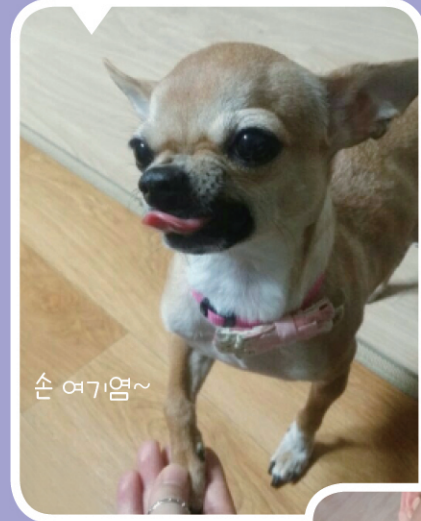
생산기술1팀 김성훈 과장

나들이 나갔다가 만난, 어쩌다 우리 딸아이에게 붙잡힌 길냥이에요.
순한 녀석이라 우리 아이가 쓰다듬어 주니 암전히 있네요~
둘 사이에 교감이 너무 좋아서 한 장 찰칵~

종이우

공정기술반 김성준 기장

우리 집 비타민 종이는 우리 부부가
외출했다 돌아올 때면 항상
현관 중문 앞에서 대기 상태입니다.
퇴근 후 이 녀석 재롱에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손 여기염~



아부지랑 영판이네

단지♂

보전2팀 박강준 사원

‘꿀단지’도 되었다가 ‘애물단지’도
되는 단지입니다. 겁은 많은데 밖에만
나가면 정신줄을 놓고 달려 나가서
늘 조심조심~ 집에 갈 때마다 쫓아
나와서 배를 만져달라며 애교를
부립니다. 주인 닮아서 귀엽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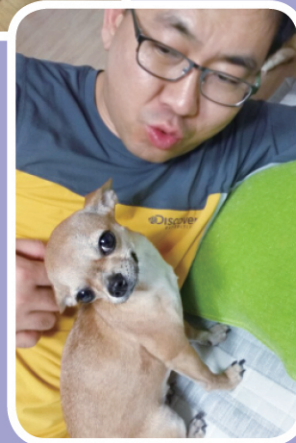
둥이♂

공정QC 이창근 조장

잘 걸지도 못하는 생후 2개월 때 우리 집에 온 소중한
녀석입니다. 대화가 많이 없고 웃을 일도 없는 집에 둥이가
있어서 웃게 됩니다. 특기는 기다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기다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먹고 기다리는
기특한 녀석이에요.



슬픈 기다림...



이꼬봉♂

금형설계팀 이임범 대리

간식에서 눈을 못 떼는 우리
집 막내 꼬봉이~ 평소엔 집안
상전이지만, 간식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한 척~~
연기파 배우 못지않죠? ㅎㅎ

삼영핫스탬핑 흡수합병



10월 1일 합병등기를 마지막으로 ㈜성우하이텍과 ㈜삼영핫스탬핑의 흡수합병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7월 21일 공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합병을 통해 ㈜성우하이텍이 가진 성형 기술과 ㈜삼영핫스탬핑이 보유한 핫스탬핑 기술의 결합으로 차체사업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핫스탬핑(hot stamping)이란 950℃의 고온으로 가열된 철강소재를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성형한 뒤, 금형 내에서 급속 냉각시키는 공법을 말한다. ㈜삼영핫스탬핑은 핫스탬핑 분야 국내 점유율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독보적 기업으로, 현재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에 위치하고 있다.

제14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 성료



9월 1일, 서창공장 전용 경기장에서 제14회 ㈜성우하이텍 회장배 족구, 탁구, 풋살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명근 회장의 제안으로 여러 직원들이 시축행사에 참여하여 직원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라는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경기마다 유난히 아슬아슬한 명승부가 이어졌고, 실력이 일취월장한 선수들도 많아서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시상식에 앞서 마련된 양산시 탁구협회 소속 선수들의 초청 경기는 색다른 즐거움을 주며 열띤 호응을 얻었다. 1년간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친 선수들에게도, 심 없이 응원과 격려를 보낸 임직원 모두에게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무리된 뜻깊은 대회였다.

» 관련 기사: 4p

2018년 (주)성우하이텍 어린이집 원아모집 설명회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사로 구성된 (주)성우하이텍 어린이집(양산시 주진동 321-15, 웅상문화체육센터 맞은편)에서 2018년 원아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년 한 해의 보육 활동을 안내하고,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의 '아동중심 보육철학, 아동 주도적 학습과정, 전문적인 교사 상호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주)성우하이텍과 푸르니 보육지원재단이 함께 엄선된 과정을 거쳐 선발한 선생님들도 참석하여 설명회를 찾은 부모님들께 신뢰를 주었다.

(주)성우하이텍 어린이집(☎055-385-1260)은 상시 전화 상담 및 방문이 가능하며,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 기사: 20p

부산시 특성화고 학생 (주)성우하이텍 현장 견학 실시



8월 10일, 부산 특성화고 방문단 38명(학생 36명, 인솔 교사 2명)이 당사를 방문하여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은 부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주)성우하이텍의 앞선 공장자동화 및 산업안전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교육청은 2010년부터 호주 시드니의 기술전문대학(TAFE NSW-SI)과 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현지 어학연수와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호주 현지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성우하이텍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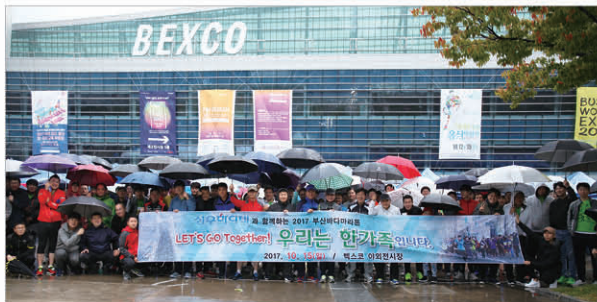
2017년도 승진자 교육



2017년도 승진자 교육이 경남 통영에서 2차 수(9월 11일~12일, 14일~15일)에 걸쳐 각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경영전장에서 배우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산도와 세병관 일대를 탐방하였고, 2일차에는 '승진자의 리더십과 역할인식'을 주제로 승진자가 인식해야 할 변화와 갈등 관리, 코칭(coaching)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보강하여 더 나은 리더십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승진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교육과정들이 계기가 되어 진정한 리더가 넘치는 성우하이텍을 그려본다. » **관련 기사: 8p**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7 부산바다마라톤대회 개최



10월 15일, 부산 해운대 BEXCO에서 '성우하이텍과 함께하는 2017 부산바다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세계 유일의 해상 대교 마라톤 축제인 이번 대회는 BEXCO 광장에서 출발하여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를 잇는 하프코스과 오륙도·동백섬·달맞이교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광안대교를 뛰는 10km, 5km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고, 외국인 500여 명을 포함한 1만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가을바다를 수놓았다.

» **관련 기사: 16p**

서창공장 BCMS 모의훈련



10월 26일, 서창공장에서 BCMS 모의훈련을 진행하였다. BCMS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 /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는 자연/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중요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계획, 집행, 점검, 평가 같은 관리적 체계를 뜻한다. 이번에 진행된 모의훈련은 가상의 화재 재난사고에 대응해 임직원의 대피활동, 화재 진압활동, 부상자 후송, 신속한 양산재개, 협력사 대응의 시나리오로 진행하였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하소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사내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스치운다

